

문해력
교과서

문해력
진단하기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학년

반

의 책에 관한 이야기

나에게 책 읽기란?

주어진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나는 책 읽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책을 읽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점검해 보세요.

시를 읽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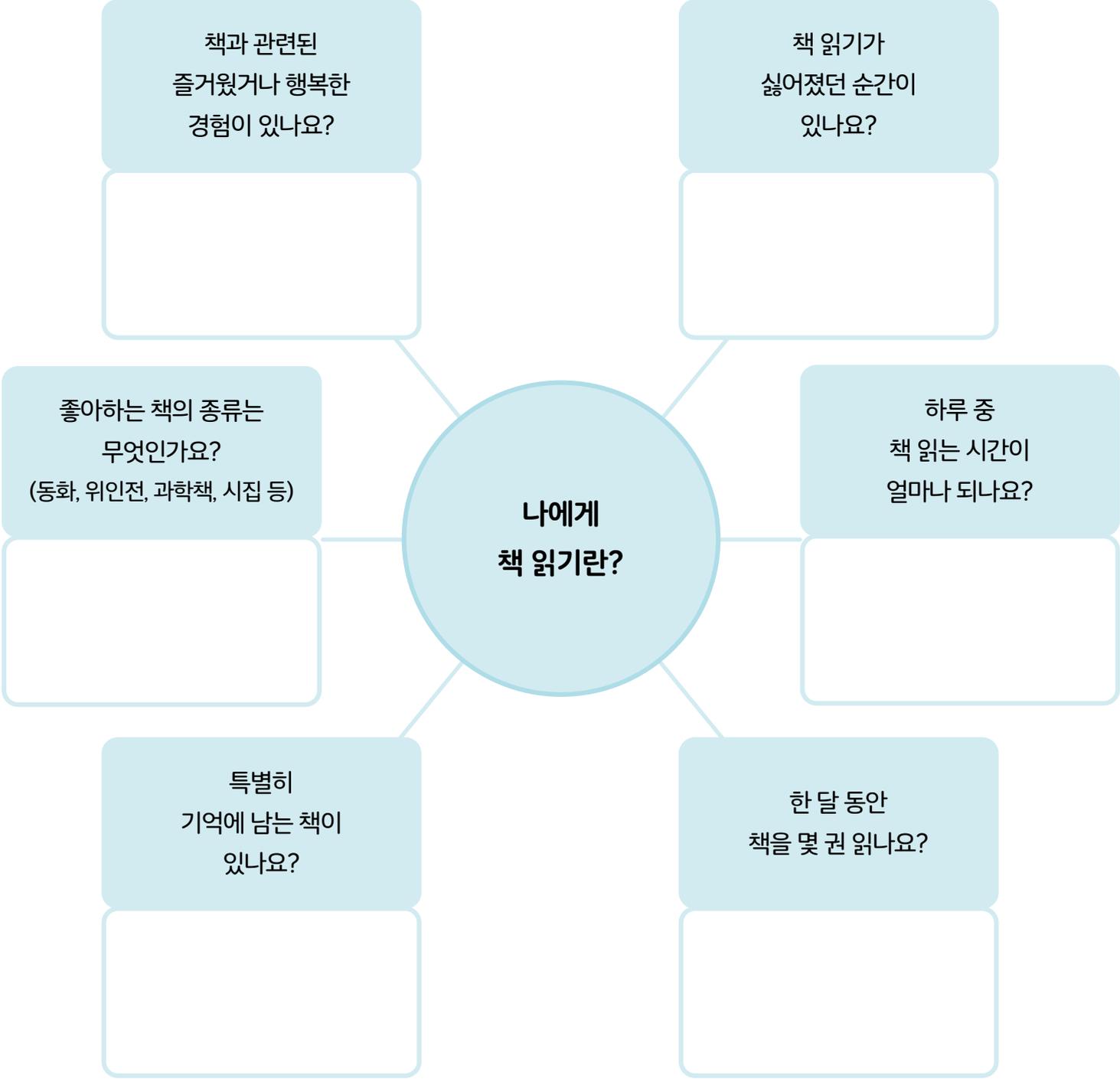
시 「쓰레기봉투」를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시에 담긴 내용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글을 읽어요

동화 「내 동생 아영이」를 소리 내어 읽어 보고, 글에 담긴 내용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 책 읽기란?

1. 책 읽기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다음 질문에 대해 보세요.



2. 책을 읽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각 항목을 읽고 '아니에요', '보통이에요', '그래요' 중에서 나의 태도에 가장 가까운 것에 ○표를 해 보세요.

아니에요 보통이에요 그래요

| | | | |
|-------------------------------------|---|---|---|
| 책 읽기는 나의 취미 중 하나예요. |  |  |  |
|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골라요. |  |  |  |
| 특별히 좋아하는 작가나 책이 있어요. |  |  |  |
| 교과서에 재미있는 글이 있으면 그 글이 실린 책을 찾아 읽어요. |  |  |  |
| 책을 읽으며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즐거워요. |  |  |  |
| 책에 어려운 말이 나오면 앞뒤를 살펴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해요. |  |  |  |
| 읽은 책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  |  |  |
|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글로 쓸 수 있어요. |  |  |  |
|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좋아해요. |  |  |  |

시를 읽어오

● 시에 담긴 중심 생각 파악하기

쓰레기봉투

이정록

엄마는 넘치는 것보다
모자라는 게 좋은 거라 한다.
잠도 오락도 줄이란다.

그런데 왜 쓰레기봉투는
배불뚝이가 되는 걸까?
뭉이지도 않는 걸까?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부글부글 과식 소화 불량
왜 자꾸만 터지는 걸까?

1. 각 연의 중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 | |
|----|--------------------------------|
| 1연 | 넘치는 것보다 모자라는 게 좋은 거라는 엄마의 말씀 |
| 2연 | 쓰레기가 가득 찬 <input type="text"/> |
| 3연 | 음식물이 가득 찬 <input type="text"/> |

2. 2연에서 표현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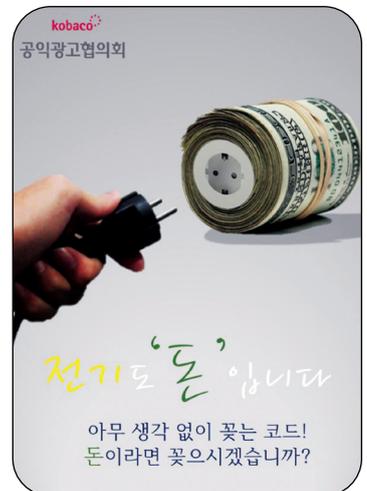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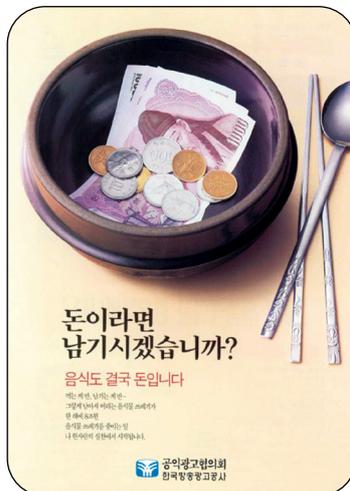


3. 이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말을 찾아보세요.

이 시에서는 음식물이 가득 찬 음식물 쓰레기봉투의 모습을

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 이 시의 주제와 가장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익 광고를 골라 ✓ 표를 해 보세요.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공

5. “넘치는 것보다 모자라는 게 좋은 거”에 해당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찾아 그렇게 생각한 까닭과 함께 써 보세요.

보기

- 넘치는 것보다 모자라는 게 좋은 거: 쓰레기
- 그렇게 생각한 까닭: 쓰레기가 적을수록 우리가 사는 지구는 더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 넘치는 것보다 모자라는 게 좋은 거: _____

• 그렇게 생각한 까닭: _____

●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읽기

내 동생 아영이

김중미

해가 누엣누엣 지고 있는 텅 빈 운동장을 걸어 나오다가 희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있잖아, 아영이 몇 살이야?”

“아홉 살.”

“근데 왜 학교 안 다녀?”

“몰라서 묻냐?”

영욱이가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학습 도움실 가면 아영이 같은 애 있는데. 너 몰라? 2학년 3반 애.”

“.....”

“아영이도 개처럼 학교 다니면 좋을 텐데..... 아침마다 학교도 같이 가고.”

영욱이는 희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다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개는 한글도 알고, 우리 아영이보다 말도 잘하잖아. 내 동생은 말도 잘 못하고.....”

“그래도 필요한 말은 다 하던데 뭐.”

영욱이는 고개를 돌려 희수 얼굴을 보며 불쑥 물었다.

“넌 내 동생이 학교에 잘 다닐 것 같냐?”

“그러엄.”

영욱이의 갑작스런 물음에 희수가 눈이 동그래져서 대답했다. 영욱이는 희수 얼굴을 뻔히 바라보았다. 장난으로 하는 말 같지는 않았다.

“우리 엄마도 내년에 입학시키자고 그러는데…….”

“그래? 잘됐네.”

희수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근데 난 아냐.”

“뭐가?”

“넌 내 동생이 얼마나 고집불통인 줄 몰라서 그래. 말도 안 통하고, 내가 속상해서 하는 말도 다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래서 넌 아영이가 학교 다니는 게 싫어?”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희수도 자기가 하는 말을 아영이가 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 또 고집이 세서 아영이가 하기 싫다는 건 절대 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같이 놀다 보면 도와주어야 할 일도 많았다. 화장실도 같이 가 줘야 하고, 길을 건널 때 살펴 줘야 하고, 말도 아영이가 알아듣게 쉬운 말로만 골라서 천천히 해야 한다. 또 금방 싫증을 내서 한 가지 놀이를 오래 할 수도 없고, 고집을 피우면 얼른 양보해야 한다.

그래도 희수는 아영이가 좋다. 아영이는 희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 주었다. 희수는 그동안 엄마한테 섭섭했던 마음과 속상했던 일들을 아영이에게 다 털어놓았다. 아영이가 그 말을 다 알아듣진 말건 상관없었다. 아영이는 느낌으로 희수의 슬픈 마음을 알아주었다.

아영이는 희수를 자주 안아 준다. 아영이에게 안기면 희수는 가슴에 박힌 딱딱한 돌멩이들이 하나씩 녹아 없어지는 느낌이 든다.

“나는 아영이 같은 동생이 있으면 잘해 줄 것 같은데…….”

“치, 막상 네 동생이 아영이라면 안 그럴걸.”

“아냐, 정말이야. 나는 아영이랑 있는 게 정말 좋아. 있잖아, 아영이는 이상한 힘이 있는 것 같아. 개는 진짜 특별해. 속상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영이랑 놀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 이상하지? 아영이를 생각하면 밀가루 반죽이 떠올라.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영욱이는 희수 말을 듣는 게 거부했다. 희수는 다른 아이들처럼 아영이를 홍보거나 놀리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아영이가 좋다고, 특별한 아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욱이는 이상하게 희수 말을 듣는 게 불편했다. 생각해 보면 엄마도 희수와 똑같은 말을 자주 했다.

하지만 영욱이는 아영이를 떠올리면 희수처럼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라 무겁고 답답한 마음부터 들었다. 아영이랑 재미있게 놀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말썽부리지 않게 할까, 위험한 일이 없도록 할까 하는 고민만 하게 된다.

영욱이는 생각했다. 자기도 희수나 엄마처럼 아영이가 특별해 보였으면 좋겠다고. 아영이의 좋은 점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1. 아영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표를 해 보세요.

- 아홉 살이에요.
- 2학년 3반 학생이에요.
- 말을 하거나 알아듣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2. 아영이에 대한 영욱이와 희수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영욱

아영이는 특별한 아이야.
나는 아영이랑 있는 게 정말 좋아.

희수

아영이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야.
나는 아영이를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

3. 이 글의 내용으로 볼 때 “가슴에 박힌 딱딱한 돌맹이들”은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지 빈칸에 써 보세요.

아영이에게 안기면 희수는 가슴에 박힌 딱딱한 돌맹이들이 하나씩 녹아 없어지는 느낌이 든다.

섭섭한 마음

4. 다음 장면에서 영욱이와 희수의 말투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빈칸에 써 보세요.

영욱이는 고개를 돌려 희수 얼굴을 보며 불쑥 물었다.
“넌 내 동생이 학교에 잘 다닐 것 같냐?”
“그러엄.”
영욱이의 갑작스런 물음에 희수가 눈이 동그래져서 대답했다.

보기

장난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통명스럽게 미안하다는 듯이

영욱이의 말투

희수의 말투

5. 동생 아영이 때문에 고민하는 영욱이에게 어떤 말을 해 주면 좋을지 써 보세요.

영욱아, _____

이렇게 지도하세요

나에게 책 읽기란?

1.

지도 방법

독서에 대한 호감이나 관심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문해력이 길러지는 것은 아니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책 읽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책이 있는지, 평소 얼마나 책을 읽는지 답하면서 스스로 독서 호감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단순히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지, 또는 책을 많이 읽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에 대한 아이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간단하게라도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항목이 있다면 표시해 두었다가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2.

지도 방법

평소 독서 태도를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책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초등 중학년은 다소 긴 줄글의 책도 끝까지 읽어 내면서 기본적인 어휘력을 늘려 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독서를 지나치게 강요할 경우 책에 대한 반감이 생겨 오히려 독서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자신의 독서 목적이나 관심 분야를 고려하여 읽을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독서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글을 읽다가 어려운 말이 나오면 문맥을 살펴 그 뜻을 유추해 보게 하고 국어사전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또 책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서 나아가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지,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거나 글로 쓸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1.

예시 답 (2연) 쓰레기봉투 / (3연)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도 방법 각 연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시의 한 줄을 행이라고 하며 하나 이상의 행이 모이면 연이 됨을 설명해 주고, 각 연에서 중심 시어나 시구를 찾아보도록 지도합니다.

2.

예시 답 그림 생략(묶이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봉투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모습)

지도 방법 2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배불뚝이는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지?”, “왜 쓰레기봉투가 묶이지 않는 걸까?” 등의 질문을 통해 아이가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예시 답 부글부글 과식 소화 불량

지도 방법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감각적 표현을 찾는 데에서 나아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할 때와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부글부글 과식 소화불량’이라고 표현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4.

예시 답 두 번째 광고

도움말 이 시는 일상생활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두 번째 광고로, 이 광고 역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물을 절약하자라는 내용을, 세 번째 광고는 전기를 아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도 방법

시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이 시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를 찾아보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익광고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주제를 파악하는 활동을 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5.

예시 답

쓰레기, 쓰레기가 적을수록 우리가 사는 지구는 더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 과자, 과자는 많이 먹을 수록 우리 몸에 안 좋기 때문입니다. 등

지도 방법

시의 내용을 자신의 삶이나 가치관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이해의 폭을 확장해서 적용해야 하는 활동이라 아이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기>를 예로 들어 “넘치는 것보다 모자라는 게 좋은 거”라는 시구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아이가 스스로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글을 읽어오

「내 동생 아영이」

1.

예시 답

아홉 살이에요. / 말을 하거나 알아듣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도움말

아영이는 아홉 살이지만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내 동생은 말도 잘 못하고……”, “말도 아영이가 알아듣게 쉬운 말로만 골라서 천천히 해야 한다.” 등에서 아영이가 말을 하거나 알아듣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 방법

글에 나타난 인물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영욱이와 희수의 대화 내용, 영욱이와 희수의 생각이 서술된 부분에 주목하여 아영이의 특징을 파악하고, 아영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지도합니다.

2.

예시 답



지도 방법

특정 대상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아영이에 대한 영욱이와 희수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찾아 표시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각 인물이 아영이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함께 찾아보도록 지도합니다.

3.

예시 답

섭섭한 마음,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 등

도움말

“희수는 그동안 엄마한테 섭섭했던 마음과 속상했던 일들을 아영이에게 다 털어놓았다. 아영이가 그 말을 다 알아듣건 말건 상관없었다. 아영이는 느낌으로 희수의 슬픈 마음을 알아주었다.”, “속상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영이랑 놀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 등에서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도 방법

글의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표현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희수가 아영이랑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에 주목하여 표현에 담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섭섭한 마음,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처럼 글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마음뿐만 아니라, 아이가 희수의 입장이 되어 짐작해 본 마음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4.

예시 답

영욱이의 말투: 통명스럽게 / 희수의 말투: 당연하다는 듯이

지도 방법

등장인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아영이가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 두 인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와 어울리는 말투를 <보기>에서 고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답을 찾은 후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대화 부분을 낭독해 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예시 답

영욱아, 천천히 가르쳐 주면 아영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거야. 힘들겠지만 아영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가 조금 도와주면 어떨까? / 영욱아, 아영이와 함께 다닐 때면 아영이를 챙기느라 많이 힘들었지? 너는 동생 아영이에게 충분히 좋은 오빠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등

지도 방법

등장인물의 상황과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조언이나 위로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아이가 어디에 주목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영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싫은 마음’, ‘아영이의 좋은 점보다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보여 힘든 마음’ 등 영욱이가 느끼는 여러 마음과 영욱이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살핀 후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또 글을 쓸 때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게 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